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겨울 동화 속으로

38. 기나긴 코펜하겐의 겨울 밤

정신없이 자다가 깰 때는 온통 깜깜했다. 실컷 자고 일어났으니 새벽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핸드폰을 보니 밤 10시 30분! 저녁도 먹지 않고 잤으니까 겨우 서너 시간 자고 깬 것 같다. R도 깬다. 우리는 서로 쳐다보며 '배고파!' 하고 동시에 외쳤다. 그러나 너무 춥고 깜깜해 호텔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룸 서비스를 시켜 먹을까 생각했으나 이용 너무 늦었으니 밤중에 과식하지 말고 그냥 내일 아침에 많이 먹기로 했다.

우리는 한밤중에 잠이 깨어 놀기 시작했다. 일기도 쓰고, 핸드폰도 보고, 나는 무릎 운동까지 했다. 하리보 캔디를 먹으면서 랩탑으로 드라마를 보던 R에게 내가 문득 물었다. "네 친구 몰튼하고는 잘 만났어? 얘기도 많이 하고?" R은 랩탑을 덮고 침대에 걸터앉아 친구와 만나고 온 얘기를 해 준다.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몰튼은 졸업하고 코펜하겐에 돌아와 컨설턴트가 되었다고 한다. 아주 잘 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다고. 몰튼은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고 누나가 한 명 있었다. 누나는 코펜하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다. 문제는 의사가 된 누나가 외국으로 나가 개업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로 가서 개업을 했는지는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덴마크에서는 공부를 끝내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누나는 덴마크에서 교육 받고 외국으로 나가 개업을 해 버렸으니 국가를 저버린 일종의 '배신자' 가 되었다는 것이다. 주위에서는 누나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바라본다고 한다. 그와 반면에, 누나는 '내 삶은 내가 살지 국가가 살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며 꾀꾀하다고.

몰튼 누나의 얘기를 듣고 덴마크 사회의 또 한 면을 본 것 같았다.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교육비 등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지만 혜택을 주는 만큼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암암리에 제한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몰튼의 말에 의하면 편안하고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도전정신 없이 작은 나라에서 안이하고 예상된 삶을 사는 것에 불만과 답답함을 느끼는 덴마크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고 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뒤죽박죽 같지만 넓고 자유로운 미국으로의 탈출을 꿈꾼다고 한다. 지상 낙원에서 다들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야기였다.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중에 코펜하겐의 겨울밤은 끝날 줄을 몰랐다. 이렇게 짙은 어둠에 둘러 싸인 춥고 습기 찬 땅에서 덴마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캘리포니아 날씨를 생각하니 '천국이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혹독한 겨울밤 속에 생존하며 건강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덴마크 사람들은 반드시 '취계' 를 해야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바깥은 살 에이는 겨울이라도 실내를 따뜻하고 환하게 해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답게 지내다 보면 북구의 기나긴 밤도 견딜 힘이 생길 것이다.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잠이 와서 또 잤다.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이번엔 오전 7시. 배가 고파서 나가고 싶었으나 해가 뜨지 않으니 도리가 없다. 해 뜨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디 가서 아침을 먹을까 검색을 시작했다. 전통 덴마크 스타일 브런치를 먹어 보기로 하고 크리스찬보그에 있는 '카페 노든' 이라는 곳으로 정했다. 구글에 올라온 평도 좋고, 올라온 음식 사진도 다 맛있게 생겼다. 새날아, 빨리 밝아라. 내일은 R과 코펜하겐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재미있고 알차게 보내야지.

iTalk Wireless & Repair  
핸드폰 수리



- IPHONE
- IPAD
- LG
- SAMSUNG
- MOTOROLA
- TABLET
- COMPUTER



**\$20** 무제한 통화, 문자, 한국전화 (2GB, LTE)

**562.246.2446** (문자 가능)  
11421 Carson St. #G, Lakewood, CA 90715

JOY 핸디맨 & 플러밍



연락주세요.

**24** 시간 **제이킴**  
**714.249.5469**

주택용자 · 재용자

NO TAX 용자 전문

10% 다운 for 자영업자

- Up To \$750,000 **NO TAX**
- No Mortgage Insurance
- No First Home Buyer

5% 다운 for 직장인

- Up to \$726,500 **NO TAX**
- 크레딧 620 이상
- Mortgage Insurance

25% 다운 for 2nd/투자용 홈

- \* 크레딧 640/ \$1.5M **NO TAX**
- \* Full Docs: 15% Down

재용자 + Cash Out

- \* 직장인 620 at 85% **NO TAX**
- \* 자영업 650 at 70%

외국인 용자 30% 다운 / SBA. APT. COMMERCIAL. CONSTRUCTION

**3.5%**

30 Yr Fixed Conforming Loan/ Rate Effective As of 10/17/19  
Rate Changes Daily/APR 3.75%



Global 7 Lending  
H.Q. Office  
1427 Lomita Blvd., #7,  
Harbor City, CA 90710  
DRE #01707526  
NMLS #1693221  
Fax) 818-561-3970  
g7spaces@gmail.com

**213. 434. 8669**

**G7 용자**

**Fullerton Office**  
1303 W Valencia Dr., #203  
Fullerton, CA 92833

**Wilshire Office**  
3660 Wilshire Blvd., #1080  
Los Angeles, CA 90010